美半導体 需要者 美·日 協定에 反対

1. 美日半導体協定 反対總蹶起大会

지난 7월 31일에 타결, 9월 2일에 정식調印하여 성립된 美·日半導体通商協定은 発効벽두부터 발등의 美國半導体需要者가 『動脈이 끊어져 出血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반창고를 붙여 응급조치를 하는 셈』이라고 항의하는 등 맹렬한 반대에 부딪쳐 多難한 出帆을 했다.

이 協定이 実効에 옮겨지자 2,700余社로 구성되어 있는 美國電子工業会(AEA)는 지난 9월 5일, 캘리포니아州 파로아르트에 있는 本部에 主要企業 60社의 經営首脳陣과 워싱턴으로부터 商務省(DOC), 通商代表部(USTR)의 交渉担当者 2명을 초청하여 「美·日半導体 協定反対의 總蹶起大会」를 개최했다. 이어서 AEA는 9월 9일 대표자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1) 日本製半導体価格의 急騰과 (2) 同半導体의 供給不足 即時 改善을 강력히 요청했다.

AEA라고 하면 미국의 컴퓨터/일렉트로닉企業(즉 半導体IC의 대형 수요자)이며 더우기 美國半導体工業会(SIA)와는 같은 실리콘밸리지역의 이른바 이웃에 있다. 이번 美日半導体摩擦을 타결하는 방법은 양자의 利害를 정면에서 대립시켜 不協和音을 일으키는 결과가 된 것이다. AEA관계자는 「기껏해야 12社밖에 되지 않는 半導体IC메이커만이 유리해졌으며 5,000余社의 半導体IC수요자가 이의 희생이 되어 不利한 입장이 되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美國의 半導体IC 수요자를 크게 분노시키고 있는 直接的인 原因은 현재 日本에 거의 전면 의존하고 있는 256KDRAM과 256KEPROM의 가격이 美日半導体妥結(7월 31일) 이후 DOC 의 제1회 FMV(市場公正価格)裁定으로 급등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의 공급량이 격감한데 있다. 즉 前者(DRAM)의 경우 8월이전의 평균가격 2.25弗이 協定妥結後 5弗로 2.2배 올랐으며 後者(EPROM)의 경우 4.75弗에서 8.5弗로 1.5배 올랐다. 가격상승으로 商談이 지지부진하여 일본으로부터의 DRAM, EPROM出荷가 주춤, 需要균형이 무너져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 「価格引上, 供給不足」에 不安

그런데 이번에 発効한 美日半導体通商協定에서 美國半導体業界側은 2개의 속셈을 실현시키는데 있었다. (1) 日本半導体IC메이커에 의한 美國市場에서의 덤핑을 방지하고 (2) 美國半導体IC메이커의 日本市場에서의 쉐어를 향후 5년간에(1991년까지) 현재의 8.5%에서 2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美日메이커의 相互市場進出狀況은 表1, 表2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이다)

美·日 半導体通商 協定은 최대의 난관을 맞고 있다. 메이커측 요구와는 달리 美國電子業会(AEA)는 日製 반도체 가격 급등과 供給 부족의 즉시 해결을 요구하며 협정 반대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최근은 美 商務省에서조차 시정을 촉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編輯者 註)

表 1 美國半導体 IC市場 top10社別 販賣実績과 쉐어 (1985年)

序列	메 이 커	販賣額(100만弗)	市場쉐어(%)
1	모토로라	1,228	12.9
2	TI	926	9.7
3	인텔	678	7.1
4	내셔널세미컨덕터	621	6.5
5	AMD	403	4.2
6	시그네틱	374	3.9
7	日立	367	3.8
8	페어차일드	332	3.5
9	富士通	230	2.4
10	東芝	221	2.3

(註) 日本電気는 조사대상의 자료 : 데이터 퀘스트社

表 2 日本市場에서의 美國IC메이커 販売実績 (1985年)

序列	메 이 커	販 売 額 (100만弗)	対自社IC販売總額比(%)
1	TI	205	12
2	인텔	85	9
3	모토로라	70	6
4	AMD	65	10
5	내셔널세미컨덕터	35	4
6	페어차일드	30	6
7	시그네틱	15	3
8	모노리식	9	5
	合 計	514	8

資料 : ICE社

2개의 協定実施目的중 前者는 이미 美國側 수요자로부터 「가격인상과 品貴」라는 비명이나 오고 있는 실정이며 한편, 後者에 대해서도 美 메이커의 日本市場쉐어擴大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罰則規定이 없음에 따라 協定 자체의 実効性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美半導体業界 입장에서) 悲觀論, 警戒論이 発効한지 1개월도 채 못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美國半導体IC수요자 사이에 「価格引上供給不足」反対라는 市況에 대한 不安·不信感을 초래한 원인은 하나가 있다. 美日政府(日本側은 通産省, 美國側은 商務省)가 日本메이커의 半導体IC出荷価格이 美國市場에서 덤핑이 되지

表 3 美日合意에 의한 半導体 輸出価格 監視시스템의 内容

価格監視機關	監視対象半導体 IC	監視対象메이커
美國商務省(DOC) (反덤핑法 適用停止에 의한 美國의直接監視)	DRAM(256K비트以上)	日本電気, 日立, 東芝, 富士通, 三菱, 松下電子工業, 沖電気, 日本TI
	EPROM(256K비트以上)	松下電子工業을 除外한, 上記7社
通産省(輸出価格을 日本側이 自主管理) 但, DOC가 요청하면14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	1. DRAM 2. EPROM 3. 스태틱 RAM 4. ECL型 RAM 5. ECL型로딕 6. 마이크로프로세서 (8.16비트) 7. 마이크로컨트롤러 (8비트) (8. ASIC-세미카스텀IC? (9. 通信用IC)?	上記8社

않도록 공동으로 価格監視体制를 취한 때문이다. (表3)

이 価格監視体制下에서 DOC는 256K 비트이상의 DRAM과 EPROM에 關해서는 日本메이커가 提出하는 毎分期에 前分期分의 (1) 生産原価 (2) 輸出価格 (3) 美國에서의 実賣価格 등 각 데이터를 基準으로 하여 反덤핑의 이른바 FMV(市場公正価格)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이 2種의 尖端IC에 대해서는 日本메이커의 出荷価格을 美國政府가 그의 裁量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더우기 이 決定価格은 対美市場用에 그치지 않고 第3國으로의 輸出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自由貿易으로부터 管理貿易의 移行(後退?)이라고 불러지고 있는 것이다.

日本半導体IC業界로서는 모름지기 屈辱的인 타결이며 美國(그리고 日本, 他國의) 半導体IC수요자로서는 致命的인 大打撃을 받은 셈이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美日交渉過程에서 「왜 이 2大需給勢力이 半導体메이커를 상대로 하여 結束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不可思議한 의문이기도 하다. 日本側은 말하자면

「敵의 敵은 내편」이라는 戰術을 전개하지 못한 것이다.

3. 日本에게만 有利?

이번 대부분의 美國半導体 IC수요자는 經濟戰爭의 武器인 Anti-dumping은 日本에게만 有利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이대로 日本製半導体IC(表3중의 11品目)의 가격이 高水準에서 誘導되어 간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것과 같이 문제는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확대해 간다.

• 最尖端IC 칩을 適正(수요자에게 有利)한 価格과 数量으로 빨리 入手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의 좋은 예는 256KDRAM이라 할수 있다. 이 IC는 사실상 日本TI외에 美國메이커는 생산으로부터 철수, 日本메이커의 独舞台가 되고 있다. 韓国의 三星電子가 최근 공급개시한 한편 美 모토로라社도 東芝로부터 半完成品輸入形態로 DRAM市場複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 美國의 컴퓨터 關聯메이커가 低코스트IC칩을 공급받지 못하면 더욱더 國際競爭力을 상실해 나간다. 被害(打撃)의 순서는 (1) 新興 技術型 벤처(周辺機器메이커) (2) PC콤퍼터블機메이커 (3) PC / 미니컴퓨터 / 메인프레임 메이커 그리고 최후에 完成品의 가격인상으로 (4) 컴퓨터 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된다.

• 日本메이커側의 収益은 向上되고 利益의 일부는 차례로 研究開発費에 投資되어 美日메이커의 最尖端技術格差가 확대된다.

• 美國컴퓨터産業의 空洞化(低賃金・低코스트의 海外에 依託하여 그 生産拠点으로부터 完成品 / 半完成品을 輸入하여 OEM販賣 함으로서 이 결과 自國의 生産性을 退潮시키는 現像)가 더욱 더 助長된다. AEA로 代表되는 美國半導体IC 수요자側이 제기한 크레임에 대해 DOC나 SIA는 이번 美日半導体通商協定을 옹호하여 다음과 같이 反論을 펴고 있다.

• (DOC反論) 協定은 큰 의미가 있다. 즉 (1) 이 협정으로 日本메이커의 덤핑을 解消시킬수 있다. 그렇게 못했을 경우 美國國内에는 半導体IC의 外販市場이(内製化市場밖에) 없어져 버린다. (2) 가령 덤핑課税라는 형태로 타결될 경우에는 美國政府는 変動되는 価格을 모니터 할 권리를 얻지 못했다.

• (SIA反論) 高価格을 적용할 수 없는 日本製의 半導体IC를 美國수요자는 미국인으로서 購入使用해서는 안된다. (經濟原則을 무시한 感情的 「바이 아메리칸」論이라는 등)

4. 메이커의 警戒, 수요자의 期待

美日半導体通商協定이 実行됨에 따라 日本메이커측이 다음과 같이 손을 써오지 않을까 하고 美國側은 半導体IC 메이커가 警戒를 하고 수요자가 (아마) 期待하고 있다.

• 秋葉原(아끼하바라)가 「세계제일의 IC스포트(灰色市場)」로 化하여 거기서는 美日, 그리고 제3국의 IC바이어가 暗躍하여 低価格IC를 구매하러 온다.

• 日本및 제3국에서 IC를 프린트回路基板에 実装하여 IC單位로서가 아닌 半完成品으로서의 輸出로 전환해 간다.

• 제3국에 日本系의 独立会社를 創設하여 여기서 価格監視의 規則을 받지 않고 半導体IC를 低価格生産하여 対美輸出한다.

이상 세가지의 움직임이 実行으로 옮겨질것인지 아닌지는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적어도 現狀事実은 표면화되고 있지 않다.

DOC는 7월말의 제1회 FMV提示에 이어 日本메이커로부터 提出된 最新(9월까지의) 生産・販賣데이터를 바탕으로 제2회의 分期FMV (86년 10월 16일~12월 31일)을 10월11일에 裁定하여 日本메이커에 通告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이 FMV価格決定方式을 향후 5년간 分期마다 실시해 나가게 된다. 과연 그 영향은 美日(그리고 제3국)에 어떻게 파급해 갈 것인지 予断을 不許하는 期待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註) 9월말 DOC는 日本메이커에 대해 同FMV를 内示한(256KDRAM価格은 2~3弗에 集約). 実勢価格에 접근했다면서 日本측은 다시금 환영하고 있다.